



▲ 화성공장 전경

“KFPA 화재안전 우수사업장” 한국쓰리엠(주)화성공장

글 **박훈** KFPA 홍보팀 대리

이번 호에는 지난 여름호에 이어 『KFPA 화재안전 우수사업장』로 선정된 ‘한국쓰리엠(주)화성공장’을 방문하여 김홍삼 안전보건환경팀장과 박준범 주임을 만나보았다.

혁신과 창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M(Minnesota, Mining & Manufacturing)은 전 세계 63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연마재철 제조 용도의 미네랄 채광을 위해 1902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쓰리엠(주)은 1977년 9월 두산그룹과 3M의 합작으로 설립된 이후 1996년에 두산그룹 소유의 지분을 전액 인수하면서 100% 3M 투자회사가 되었다.

3M은 오피스, 디스플레이, 통신, 의료, 교통, 안전 등 6개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42개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6만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쓰리엠(주)화성공장에서는 LCD용 고휘도 강화필름 및 산업안전용 호흡보호구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창조를 바탕으로 매년 500개 이상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포스트잇, 스카치테이프(Scotch tape)이다. 잘 붙지만 반대로 잘 떨어지는 접착제로 만든 포스트잇, 미국 대공황 때 못쓰게 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된 스카치테이프 등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한 3M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의 중심, 3M의 10%, 30%, 15% 원칙

3M에는 10% 원칙, 30% 원칙, 15% 원칙이 있다. “10% 원칙”이란 최근 1년 이내에 개발된 신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30% 원칙”이란 총 매출의 30%를 최근 4년 이내에 출시한 신제품이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10%, 30%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3M은 “15% 원칙”도 만들었다. 직원이 본인의 고유 업무 이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근무시간의 15%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통해 3M은 혁신적인 신상품을 끊임 없이 개발해 히트상품을 내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KFPA 화재안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란 KFPA가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우수사업장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 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한국쓰리엠(주)화성공장'은 화재안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6월 22일, KFPA 경기강원지부장, 점검자 및 한국쓰리엠(주)화성공장 안전보건환경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 우수사업장 인정패』를 사업장 입구에 부착하였다.

김홍삼 안전보건환경팀장은 “화재안전 분야에 공신력 있는 KFPA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전 직원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만하지 않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관리를 기업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어떤 기업은 사라지고, 어떤 기업은 100년이 넘도록 영속한다. 영속하는 기업에는 핵심가치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3M 사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핵심가치 중 하나는 바로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이다.

미국 3M 본사에서 계약한 GRC(Global Risk Consultant)에 의해 3M 전 사업장은 연 1회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 방수량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TEST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은 본사에 보고되어 즉시 보완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어느 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전 직원의 업무로 확대,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구내 서측 옥외에 소방교육 훈련장을 설치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 교육 및 작동훈련, 소화전 방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로 형태로 여러 개의 출입문이 설치된 클린룸 작업장 내부에 다수의 작업자가 상주하는 공정 특성상 연2회

전 직원 대피훈련을 통해 피난시간을 측정하는 등 비상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탐방을 마치며...

“국내 소방법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소방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KFPA 화재안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비결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박준범 방화관리자의 말처럼 한국쓰리엠(주)화성공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끊임없이 도전, 노력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혁신과 창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쓰리엠(주)을 보고, "3M 자회사 중 상위 5위권 유지"라는 자사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



▲화재에 대비한 직원교육